

# 관리사각 '제2의 석란정' 우려

### 전북 비지정문화재 1만개 육박... 관리실태 천차만별 이용호 의원 "발견못한 원석, 예산확보 시급" 지적

전북지역에 비지정문화재가 1만개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사진)은 "전북도에 9,740개의 비지정문화재가 있다"며 "문화재에 대한 관리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유형문화재는 국가 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로 분류된다.

비지정문화재는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는 않았지만 문화적 유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관리하는데 지난 9월 소방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석란정이 바로 비지정문화재다. 지역별로 도내에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보면 고창군이 1,097개로 가장 많고, 진안 1,071개, 정읍 848개, 순창 737개, 남원 732개 등이다. 이 의원은 "지자체별로 비지정문화재 관리를 하지 않거나, 향토문화재



로 지정해 일부 예산을 투입해 관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관리 실태는 천차만별이다"며 "비지정문화재의 통합 관리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지정문화재 역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일석일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 도의회 행사위 현지의정활동 동분서주

### 소방안전타운 조성부지 방문 부지 적정성 확인 등 꼼꼼 차질없는 사업 추진 당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3일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일대의 '소방안전타운 조성 예정부지'를 방문하여 향후 소방항공대, 특수구조단, 소방교육대가 들어설 부지로 적정한 지에 대해 확인하는 등 활발한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소방안전타운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42억원을 들여 1단계 소방항공대 이전을 시작으로 2단계 대테러·특수재난 등에 대비한 특수구조단 신설과, 3단계 소방교육대 설치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번 제3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특히 오늘 현장방문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단계별로 추진되는 소방안전타운 조성계획의 타당성과 경제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으며, 현재 대규모 양돈단지로 되어있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일대의 '소방안전타운 조성' 예정부지를 방문해 조성계획의 타당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는 조성부지의 매입과 건축물 등의 철거과정에 문제는 없는 지 꼼꼼히 확인했다.

또한 본 사업의 소방헬기장 이전 시설이 착륙에 의한 소음 민원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주민 설명회 개최, 헬기 이·착륙 시험기동 등으로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의회 김종철 행정자치위원장은 "소방안전타운은 도내 필요한 소방관련 시설을 한 곳에 배치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동부권 발전에도 중요한 사업이므로 철저한 계획에 의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중소기업중심 협력생태계 구축 2017 중소기업 융합대전이 23일 익산 원광대학교에서 송하진도지사와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및 전국 중소기업인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가졌다. 사진은 송하진 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 군산산단 위해관리계획서 주민설명회 개최

### 새만금지방환경청 내일 오후 2시 진행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법정)은 25일 오후 2시에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에서 위해관리계획서 합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위해관리계획 수립 및 주민고지 의무가 있는 군산산업단지 4개 사업장(OCI(주)군산공장, 솔베이실리카코리아(주), 한농화학(주), 한화에너지(주)군산공장)의 인근 주민·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은 유해성 정보를 비롯하여 사고 시 비상연락체계, 유출 시나리오, 주민 소산계획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등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역사회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 인근 주민·근로자들이 취급물질 정보, 대피 장소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유사 시 피해를 입지

### 약취 분야 정기 숙련도 시험서 도 보건환경연구원 '만족' 평가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하는 2017년도 약취 분야 정기 숙련도 시험에서 전 항목 '만족' 평가를 받아 약취 분석

전문기관으로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약취 분야 정기 숙련도 시험 항목인 복합약취 등 3개 항목에 대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분석능력으로 환경측정분석 최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숙련도 시험은 측정분석기관의 측정분석 능력 향상과 측정분석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년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국·공립 연구기관, 환경관련 측정분석기관 등을 대상으로 규제대상물질의 항목별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보건환경연구원 유택수 원장은 "이번 평가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내 최고의 환경 분석기관이라는 자부심으로 더 나은 분석 기술 확보와 지속적인 전문분석인력 양성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정한 전북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판문 기자

# 관광객 느는데 도로관련 예산은 '정체'

### 전북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타지자체 대비 태부족 부실공사로 이어질까 우려

전북도의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아 도로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르면, 전라북도는 총 2,154km의 도로를 관리하는데 2016년에 264억 6,000만원을 집행했다. km당 1,228만원을 사용한 것이다. 충청북도가 km당 2,333만원, 충청남도가 1,453만원, 전라남도가 1,505만원을 사용한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용호 의원은 "도로는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이자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 시설물이다"며, "도로의 유지보수사업은 비록 눈에 띄는 사업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 전라북도가 편

성·집행하는 예산이 부족해 도로의 안전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북지역은 외국인 관광사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자전거 여행지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며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 잘 확충되어 있어야 관광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고, 도로이용자의 안전 역시 보장할 수 있다. 관련 예산을 늘려 도로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